

축 사

한국불교는 민족의 삶과 문화 그 자체였기에 1700년 동안 유구한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였으며, 호국과 민생 안락(安樂)을 핵심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성보(聖寶)로서 팔만대장경, 사원건축, 불상, 불화 등은 예술문화에 그치지 않는 사상적 정신세계의 승화(昇華)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미술은 부처님의 사상을 조형예술이라는 장르 형식을 통하여 함축적이고도 상징적으로 대중에게 다가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의 문(門)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경 교화 장엄 수행 포교 등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등상(等像)을 아름다운 창작과 표현으로 예경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수행과 노력이 배가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러한 수행과 예술혼을 불사르는 성파스님의 작품 세계는 경의(敬意)를 이끌어 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옷이라는 천연 재료와 특수한 기법을 구사하여 세계 최초 ‘옷칠 불화’를 발표한 이번 「옷칠 불화전」은 불교예술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 할 것입니다.

성파스님의 불화세계는 도상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되 친환경적인 천연 옷을 접목하여 끊임없는 수행과 독창적인 예술혼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부대중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투신 부처님을 신심(信心)과 환희심(歡喜心)으로 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큰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성파스님의 정진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옷칠 불화전」을 계기로 새로운 불교문화 예술의 창출을 기대하면서, 부처님의 불은(佛恩)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5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